

“서울에 살지만 광주일보 통해 매일 ‘고향’ 소식 듣고 있어요”

광주일보 63년 독자 한국잡사민속박물관 송문호 부관장

“서울에 살지만 광주일보를 통해 매일 ‘고향’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늘 광주와 전라도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63년째 광주일보를 애독하고 있는 독자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경기도 여주의 한국잡사민속박물관 부관장이자 시인인 송문호(79)씨. 그는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의 직장을 따라 광주에 내려와 광주일고를 다녔다.

그는 “평소에도 나의 고향은 전라도라고 말한다”며 “당연히 호남의 대표 정문지인 광주일보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자와의 만남에서 송 시인은 60년 넘게 광주일보를 애독하고 있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송 시인이 광주일보를 구독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55년부터다. ‘남산전기’에 재직 중이던 부친이 발

부친 직장따라 광주서 일고 다녀

서울서 동문 만나며 추억 떠올려

100년 역사 자랑 호남 정문지 됐으면

령을 받아 광주에 내려오면서 신문을 보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그도 애독자가 됐다. 당시 그는 집과 가까운 광주일고에 진학한 상태였다.

“사택에 사는데 아침마다 어느 여학생이 광주일보를 배달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여학생에게 물이라도 한 잔 대접 못한 게 아쉬움이 남네요. 이른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



았습니다.” 이어 그는 “월말만 되면 달랑 신문값만 주고 말았다”며 “당시엔 어려서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다”고 허허롭게 웃었다.

광주를 떠나게 된 것은 부친이 대적으로 발령 나면서였다. 그곳에서도 우편으로 신문을 받아볼 만큼 부친 또한 광주일보 애독자였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는 화공약품 관련 사업을 했다. 미려하나마 개발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일본 수입품을 대체하기도 했다. 큰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 가르치고 키울 수는 있었다.

“지금도 서울에서 서증, 일고 출신 동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가 됐지만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던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떠올리곤 하죠.”

민학회 회원이며 한국고서연구회 이사이기도 한 그는 ‘옛것’, ‘남도’ 등에 관심이 많다. “남도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호도 ‘남향(南嚮)’으로 지었다”는 그는 “지금도 광주와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늘 관

심을 갖고 쫓겨본다”고 덧붙였다.

“젊은 시절에는 광주일보 서울지사에도 가끔 놀러 가곤 했지요. ‘고향 아닌 고향’을 그리워 뵈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광주에 대한 기억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은 아시안항공이 광주로 첫 취항하는 날이었다. “승객 가운데 첫 번째 손님으로 뽀뽀 제주도 여행 티켓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만 해도 친구들이 ‘금호고속’을 비롯한 호남 기업에 많이 근무해 ‘광주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회고한다.

“광주일보는 호남의 정통 일간지로 향후 지역분권을 선도하리라 기대됩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심지가 굳은 불편부당의 정문을 펴는 신문이 됐으면 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광주일보를 구독하며 ‘고향’을 응원할 생각입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대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



김혁중 광주대 총장과 박병규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이 최근 광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광주대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평가 우수상



광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7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19~20일 부산 관공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 제공>

목포대 총학생회 신항만서 세월호 추모행사



목포대학교 총학생회는 최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목포 신항만에 노란 리본을 다는 등 추모행사를 갖고, 추모 모금액 전액을 ‘416재단’에 기부했다. <목포대 제공>

유신 반대운동 주도·DJ와 민주화 동지... 현대 정치사 산증인

국회의원 6선 지낸 후능 김상현 민주당 상임고문 별세

파란만장한 한국 정치사를 온몸으로 부딪쳤던 후능(後叢)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8일 83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1935년 장성에서 태어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운영하던 웅변학원에서 수학한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65년 서울 서대문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로 당선됐으며 6선(6·7·8·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1971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를 주도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돌리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 반대운동’을 주도했으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옥고를 치렀다. 이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전두환 신군부가 작악한 제5공화국 시절, 1984년 양김(김영삼·김대중)이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자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의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1985년 2월 선거에서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끈 1987년에는 동교동계와 상교동계가 주축이 된 통일민주당에 합류했다. 대선 후보 선출 문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탈당해 평화민주



이른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을 때는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야권의 뿌리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화로 복귀된 그는 1992년 14대 국

당을 창당했을 때는 통일 민주당에 남아 김명삼 전 대통령의 대선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 민주당이 1990년 당시 이른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을 때는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야권의 뿌리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화로 복귀된 그는 1992년 14대 국

회에 진입했다. 2000년 16대 총선 때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물구나무서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장담한 뒤, 2002년 광주 북구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고인은 수 만 명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특출한 능력과 다방면의 ‘마당발’ 인맥으로 정평이 났으며, 촌철살인의 재치 있는 언설과 지략으로도 유명세를 날렸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희원 씨, 아들 윤호(우림FMG 대표)·준호(우림FMG 전무)·영호(국회의원)씨와 딸 현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장지는 경기 파주시 나사렛묘원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싱가포르 장애인탁구팀 합동훈련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과 싱가포르 장애인탁구팀이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안게임을 대비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광주장애인탁구훈련장에서 합동훈련을 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싱가포르 장애인탁구 협회에서 광주시 장애인탁구의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싱가포르 장애인탁구 선수단은 아론 에오(Aaron Yeo), 에릭 톱(Eric Ting), 제이슨 쉐(Jason chee) 등 휠체어선수 3명

과 임원(보호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훈련기간 중 지난 15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활동을 살펴보고 민주화 성지이자 스포츠 도시인 광주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실시되는 2018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아안게임 탁구종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광주시 탁구팀 김경길, 김성욱, 서수연 선수 등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권영 조선태병원 교수 보건의 날 복지부 장관상

조선태병원 재활의학과 김권영 교수가 ‘제46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향상에 앞장서는 의료인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도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제2대 호남권역재활병원장을 역임하고 조선태병원 재활의학과장으로 재직중인 김권영 교수는 광주시 동구 CBR(지역사회중심재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민의 재활건강에 앞장서고 있는 재활의학의 권위자이다.

한편 김권영 교수는 지역사회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분야에서 재가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방문, 수년째 해당 장애인들에게 재활상담 및 진료, 치료 등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롯데시네마 광주관·수완관서 ‘택시운전사’ 재개봉

롯데시네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만든 영화 ‘택시운전사’를 오는 25일까지 광주관과 수완관에서 재개봉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택시운전사인 ‘엄태구’와 직접 실존 인물 기자 ‘윌리엄 헨츠 페터’가 직접 광주에서 보고 느꼈던 내용을 소재로 제작된 택시운전사는 지난해 8

월 개봉 후 누적 관객 수 1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동준 롯데시네마 광주관 관장은 “택시운전사는 꼭 한번 다시 봐야 할 영화로 손꼽히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처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박래근(함평군청 총무과장)·김성임씨 아들 호영군 최용주·임소현씨 딸 연진양=28일(토) 낮 12시40분 아름다운 컨벤션 1층 사넬홀 피로연=21일(토) 오전 11시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센터.

▲김종철·최숙이씨 아들 해원군 김정욱(동영산업 대표)·양연남씨 딸 지영양=21일(토) 오후 1시 매종드보네 1층 보네르홀.

▲구용제(손해사정인)·전옥경씨 장남 태영군 김중욱·나하신씨 장녀 헤민양=21일(토) 낮 12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김용석(남도일보 국장대우·경제부장)·정혜숙씨 차남 김대협(오비맥주 호남권역본부) 김동연(에이엔 화장품그룹 윌네이션 호남지사장)·최경남씨 장녀 김선영(기광산업주식회사 경영사업관리부 재경팀 대리)양=21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JS웨딩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010-3235-2611)

동창회

▲광주 북성중 총동창회(회장 김공식) ‘제42회 북성인 한마음 대축제’=22일(일) 오전 9시 북성중 체육관 062-523-1300.

향우회

▲재광순천향우회=순천 향우 누구나 참석 환영 24일(화)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지원동 삼영웨딩홀 회장 장호직 010-3601-0690, 사무총장 최일호 010-6622-2178.

종친회

▲창녕조씨 광주·전남도총회(2018년도 정기총회)=21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1147 NS웨딩컨벤션 3층. 062-367-1000. 사무국장 조상현 010-6256-7406.

알림

▲일가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성보급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

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시민교육 나눔강사’ 3기 모집=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의 역사,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 24~27일까지 접수. 홈페이지(www.gie.kr) 공지사항 참고. 문의 062-600-524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아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부음

▲박점순씨 별세 문상식·상인·상임·상속·상대·상미씨 모친상 신명순·서판순씨 시모상 박흥기·석동수·손봉식·조승용씨 빙모상=발인 20일(금) 조선태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 |
|--|--|
| 謹 삼가 故 人 의 冥 福 을 빕니다 弔 | |
| 210회 故 김중호 님(남/87세) 子/子婦 : 김원태/김애자, 위태/김영숙 女/婿 : 김남아/이계관, 신아/송진과, 진희/박영우, 신영/경관근 孫 : 김양범, 영욱, 영희, 영주, 송인석, 안호, 방재훈, 재희, 이광원, 정아, 정은희 ●발 인 : 4월 20일 ●연락처 : 227-4381 ●장 지 : 보성 용지선영 | 402회 故 박준민 님(남/59세) 子 : 박원수 女/婿 : 박승희/신진호, 승현 未亡人 : 윤민지 ●발 인 : 4월 20일 ●연락처 : 227-4314 ●장 지 : 영락공원 |
| 101회 故 이천규 님(남/77세) 子/子婦 : 이경식/김연자, 민식/박순애 女/婿 : 이영희/최문용 孫 : 이광수, 영민, 희연, 희림호 ●발 인 : 4월 21일 ●연락처 : 227-4385 ●장 지 : 영락공원 | 101회 故 공기준 님(남/37세) 父/母 : 공명주/이계순 兄弟 : 공기훈 ●발 인 : 4월 20일 ●연락처 : 227-4000 ●장 지 : 영락공원 |
| 함께한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 | |